

1. 독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殺菌
- ② 殺到
- ③ 殺戮
- ④ 殺伐
- ⑤ 殺生

2. 밑줄 친 대상 중, 기능적 측면에서 ㉠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는 둥근 문화권에서 살아 왔다. 우리의 신체 구조는 둥근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얼굴도 그렇고 어깨선도 둥그렇게 되어 있다. 엉덩이도 여인의 가슴도 둥그렇게 아래로 처진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인도 보름달 같거나 계란 같은 얼굴의 미인을 전통적으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동실동실 생긴 여인네는 못 남성들의 이상적 아내형이었고 또 만매느리의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권이기에, ‘둥글게 사는’ 부드러움이 미덕이었다.

서양인들은 직선의 문화 속에서 살아 왔다. 신체 구조도 우리보다는 훨씬 직선적이다. 그래서 오뚝한 콧날을 지닌, 선이 분명한 미인을 그들은 찾았고 신체 구조상 어깨선과 엉덩이도 우리처럼 처진 모양이 아니다. 여인의 가슴도 뽕족이 튀어나온 모습이기에 그들의 ㉠가슴가리개는 가리는 역할보다 튀어나온 가슴을 자랑하기에 적당한 것이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여인의 가슴을 짓눌러 더욱 둥그렇게 아래로 처지게 하고 있다.

- ① 정치권은 모름지기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소여야 한다.
- ② 밤낚시를 하려면 적어도 방수옷을 준비해야 하지 않은가?
- ③ 거실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면 빼꾸기시계 하나쯤은 걸어 두어야 한다.
- ④ 그 버스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 ⑤ 이 의자는 인체의 구조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가 오지 않는다.

3. 김시습 작품(지문 : 배경은 남원)

- ① 이생규장전
- ② 만복사저포기
- ③ 호질
- ④ 사씨남정기
- ⑤ 용궁부연록

4. 다음 중 간행 시기가 가장 앞선 문학 동인지는?

- ① 백조
- ② 장미촌
- ③ 영대
- ④ 시인부락
- ⑤ 문장

5. 맞춤법이 맞는것은?

- ① 백분률, 깎두기, 솟개, 방귀쟁이, 윗층
- ② 백분률, 깎두기, 수개, 방귀장이, 윗층
- ③ 백분율, 깎두기, 수개, 방귀쟁이, 위층
- ④ 백분율, 깎둑이, 솟개, 방귀쟁이, 윗층
- ⑤ 백분율, 깎둑이, 수개, 방귀장이, 위층

6. 다음 중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것 중 틀린 것은?

- ① 노견(路肩) - 나들목
- ② 신입생(新入生) - 새내기
- ③ 안내요원(案内要員) - 도우미
- ④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 ⑤ 여흥시간(餘興時間) - 뒤풀이

7. 다음 중 맞는 것은?

- ① 띄어쓰기
- ② 문장부호 :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는.....
- ③ 맑고-> [막꼬]
- ④ 외래어 workshop-워크숍
- ⑤ 로마자표기 여의도 - Yeooui-do

8.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 ① 제 1과
- ② 두시 삼십분 오초
- ③ 책상, 걸상등이 있다.
- ④ 비가 올듯 하다.
- ⑤ 김영수씨

9. 윤동주의 서시의 본문에서 마지막 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의 ‘바람’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는?

과목에 ①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 붉은 ②황토에

가지는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③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흔히 ④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⑤시력을 회복한다.

- 박성룡<과목>

10. 다음 중 향찰 표기로 기록된 작품은?

- ① 향조가
- ② 정읍사
- ③ 한림별곡
- ④ 정과정곡
- ⑤ 도이장가

11. 순우리말을 사용한 예가 잘못 된 것은?

- ① 누워있던 그는 얼굴 앞으로 바투 얹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② 그들 둘은 서로 무릎맞춤하는 사이라서 늘 붙어 지낸다.
- ③ 그는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온몸이 젖을 때까지 거리를 헤매었다.
- ④ 막대기를 잃어버린 장난감같이 저 혼자서는 옴나위를 못한다.
- ⑤ 관복인의 키처럼 끝밋하게 쪽 뽑힌 좋은 재목

을 구해왔다.

12. 군담소설의 종류는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로 나뉜다. 각각을 분류하면?

군담소설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과 역사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정쟁에서 몰락했던 가문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으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서 부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도술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기술되고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유교윤리가 강조되면서도 이면에는 충(忠)이나 열(烈)에 대한 전통윤리로부터의 이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평민층이 향유하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역사군담소설은 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여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당하여 무능을 드러내 집권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담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인 호쾌한 활약을 보여주는 통속소설이다. 군담소설은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인기소설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염원을 도선적 신비주의에 근거한 상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반 대중의 흥미의 성향과 상상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 ① 창작 - 임진록, 유충렬전, 신유복전
역사 - 소대성전, 이태경전, 박씨전
- ② 창작 - 박씨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역사 - 유충렬전, 임경업전, 임진록
- ③ 창작 - 박씨전, 임경업전, 장풍운전
역사 - 신유복전, 유충렬전, 이태경전
- ④ 창작 - 유충렬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역사 - 박씨전, 임진록, 최고운전
- ⑤ 창작 - 박씨전, 신유복전, 이태경전
역사 - 임경업전, 유충렬전, 임진록

13. 다음의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레제시나리오 - 읽기 위한 시나리오
- ② 옴니버스 - 자막으로 구성
- ③ 클라이맥스 - 마지막
- ④ 타이틀백 - 자막과 제목
- ⑤ 페이드인 - F·I 점점 밝아지는 것

14.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7월 12일, 아침 첫 차로 ㉠경주를 떠나 ㉡북쪽
 산로 향했다. 떠날 임시에 ㉢봉황대에 올랐건만,
 잔뜩 찌푸린 일기에 짙은 안개는 나의 눈까지 흐
 리고 말았다. 시포(屍布)를 넣어놓은 듯한 희미
 한 장줄기, 몽롱한 무덤의 봉우리, 쓰러질 듯한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 어젯밤에 나를 부여잡
 고 울던 ㉣옛 서울은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거두
 지 않은 듯. 그렇지 않아도 구슬픈 내 가슴이어
 든 심란한 이 정경에 어찌 견디랴? 지금 떠나면
 1년, 10년, 혹은 20년 후에나 다시 만날지 말지!
 기약 없는 이 작별을 앞두고 눈물에 젖은 ㉤임의
 얼굴! 내 소매가 축축이 젖음은 안개가 녹아 내
 린 탓만은 아니리라.

- ① ㄅ, ㄆ, ㄇ
② ㄅ, ㄇ, ㄏ
③ ㄅ, ㄌ, ㄆ
④ ㄌ, ㄆ, ㄇ
⑤ ㄌ, ㄇ, ㄏ

15. (가), (나) 두 문단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

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 ① 주지 - 보충
- ② 전제 - 주지
- ③ 주지 - 전제
- ④ 주지 - 주지

16. 각 지방별 문화와 문화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부산 - 김정한 : 사실적 농민 소설
- ② 강원도 - 김유정 : 토속적 농촌 소설
- ③ 전라도 - 김영랑 : 남도의 구수한
- ④ 경남 - 이육사 : 저항과 풍자의 문학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
- ② 출장을 부산, 광주, 순천 등지로 다녀왔다.
- ③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야겠다.
- ④ 이번 행사에 ~부탁 드립니다.

18. 다음 밑줄 친 한자성어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바른 것은?

이지적(理智的)이요, 이론적(理論的)이기는 둘
이 더하고 덜할 것이 없지만는, 다만 덕기는 있
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존하고 순편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이 있으니까
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
어 보인다

- ① 지음 ② 백척간두
③ 백중지세 ④ 동고동락

19. 한자성어의 쓰임이 틀린 것은?

- ① 취업 떨어진 나는 臥薪嘗膽을 꿈꾸며 외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 ② 내가 다녀간 뒤 鳥飛梨落으로 아이가 ~
- ③ ~ 白眼視 ~
- ④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직장에 얽매이면 語不成說 ~